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21)<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 I. 북미

#### [미국]

##### 1. (2022년 2월 8일) 美,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 유지키로 - 농무부,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정안 마련

미국 농무부(USDA)가 향후 2년간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를 계속해서 공급키로 결정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School Nutrition standards)을 개정하고, 앞으로 2년간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무지방 및 저지방 우유뿐만 아니라 향료가 첨가된 저지방(1%) 우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매주 아침과 점심 급식에 통곡물 비중을 80%로 늘리고 내년까지 나트륨 허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2023/24학년도부터는 10%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에, 농무부 장관이 영양이 풍부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낙농업계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우유급식] 美,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 유지키로- 농무부,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정안 마련’,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2월 8일자

- 원문출처 : wishtv.com, 2월 5일자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20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 2. (2022년 1월 7일) 미국 정부, 서해안의 여력 항만의 활용과 수출입의 균형 회복을 요구

미국 교통부(USDOT) 및 농무부(USDA)는 2021년 12월 16일 미국 서해안의 항구를 이용하는 주요 해상 수송업체에 대해서, 두 성 장관 이름의 서한을 발송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생긴 공급망 혼란을 해소하도록 요청하였다.

### 1) USDOT 및 USDA에 의한 요청 내용

#### (1) 여력이 있는 항만 활용

COVID-19로 전 세계의 물류에 전례 없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장래도 내다보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잡한 로스 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은 피하고, 여력이 있는 오클랜드 항, 포틀랜드 항 등의 다른 항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의 아시아 전용 수송선으로 오클랜드 항 발 항이 잇따르면서, 수출업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을 혼잡한 로스 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까지 트럭으로 수송하여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클랜드 항으로의 기항을 재개함으로써, 로스 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의 혼잡이 완화되고, 장거리 트럭 수송의 부담도 경감되어 미국산 농축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 (2) 수출입의 상호 균형 회복

무역 본래의 수출입의 상호 균형 회복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컨테이너가 공중 수송 상태로 아시아 지역에 반송되어 있다. 이에 따른 컨테이너 부족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을 가로막는 항만 혼잡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 수출업체에는 컨테이너 이용에 관련된 수수료의 발생 등 부당한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다수의 빈 컨테이너가 있는데도 미국 수출업체의 컨테이너 이용 거부 등이 이루어질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FMC)에 의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2)에 대해서는, FMC의 권한 강화 등을 담은 미 개정 해운법안이 2021년 12월 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것<sup>2)</sup>을 배경으로, 해상운송 기업에 통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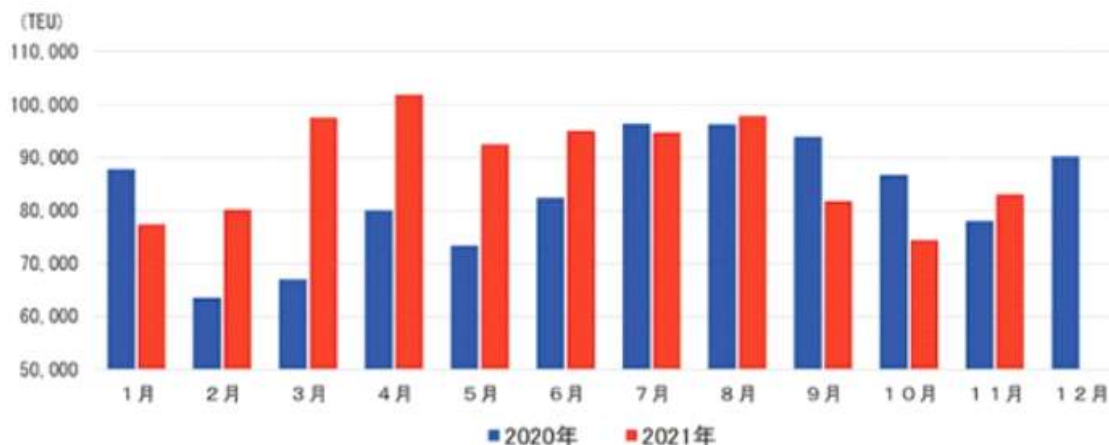
2) 미국 개정 해운 법 안에 대해서는 농축산업진흥기구, ‘「海上輸送の管理等強化を目的とした米改正海運法案が下院を通過(米国)」’, 「畜産の情報」海外情報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외국 선박에 의한 오클랜드 항 발항과 기항 재개 흐름

2021년 들어 복수의 외국 선박이 로스 앤젤레스 항 및 롱비치 항 항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클랜드 항에서 선적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 항구에서도 큰 혼잡을 빚고 있다며, 2021년 6월 이후 독일을 거점으로 하는 Hapag-Lloyd사, 프랑스를 거점으로 하는 CMA CGM사,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는 Zim사 등이 잇달아 발항을 결정하였다.

한편, 오클랜드 항은 그 해 10월, 해상 운송 기업에 대해 그 해 8월 이후 선박의 정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에 여유가 있다며 미국 서해안의 서플라이 체인 체증 완화를 위해 이 항구에 기항하도록 호소하였다. 이 항구의 같은 해 12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해상 수송 기업이 11월 들어 서서히 동항에 정박을 재개하면서 11월의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로 약 6.5% 증가, 2021년 1~11월까지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로 약 8.0% 증가하였다(그림).

그림 2020년 및 2021년 오클랜드 항에서의 월별 컨테이너 수입량



주 1: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화물량을 20피트 컨테이너 수로 환산하여 화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2: 수치는 풀 컨테이너만의 실적

3: 2021년 12월은 미집계

자료: Port of Oakland 「2021 CONTAINER ACTIVITY」

(출처) 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2022년 3월호([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98.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98.html))

## II.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1. (2022년 2월) 뉴질랜드의 COVID-19 확대 상황과 낙농업계의 대응

NZ의 2021년 12월 말일까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누계 약 1만 4000명, 사망자는 불과 51명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적다. 감염 확대 초기부터 국경을 폐쇄해 철저한 물가대책과 엄격한 록다운 정책을 실시한 점에서 21년 8~12월 델타주의 발생으로 오클랜드 등이 장기 록다운을 실시할 때까지는 감염자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거의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2021년 12월 16일에는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오클랜드 도시권 밖으로의 이동 등도 점차 제한이 해제되고 있다.

국경에 관해서는 호주 등 일부 국가와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여행버블 정책 등을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지만, 도입 후 감염 확대 조짐이 보이자 격리를 부활시키는 등 상황에 따라 대응을 자주 변화시키고 있다. NZ 정부는 오미크론 주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국경 재개 로드맵은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Dairy NZ가 제1차 산업성의 안내 하에 낙농가를 대상으로 기구의 소독과 소독약 취급방법 등의 위생관리대책, 기타 필요한 절차 등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 낙농업은, 록다운 중에도 출근이 가능한 ‘필요 불가결한 직종(에센셜 비즈니스)’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종업원은 출근 시에 항상 그 증명이 되는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Dairy NZ는 낙농업의 가동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동단체의 홈페이지에 서식(템플릿)등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농축산업진흥기구, ‘[特集：海外の牛乳・乳製品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ニューージーランド酪農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 「畜産の情報」 2022년 3월호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2026.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2026.html))

### Ⅲ. 유럽

#### [EU]

##### 1. (2022년 1월 28일) 유럽 위원회, 유럽 돼지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를 약속

2022년 1월 17일에 개최된 EU 각료 이사회에서 체코 대표부는 유럽 돼지부문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농업정책(CAP)의 시장 시책(CMO)에 기초한 지원 대책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이사회에서는 CAP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장 개입 조치 발동의 요청을 3회 연속 기각하고 있다<sup>3)</sup>. 이번 요청을 받고 EU의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담당위원은 1월 31일 열리는 농업 특별 위원회(SCA)에서 유럽 돼지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각료 이사회에서 체코 대표부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생산 원가를 밀돌고 있다”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 속에서 에너지와 사료 값 폭등이 생산 원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각료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많은 대표부가 체코 대표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들 회원국에서는 큰 우려가 있다”며, “다음 SCA에서 유럽 돼지부문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유럽 위원회에 요구하는 어떤 해결 방법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각료 이사회는 돼지고기 시장 개입 조치 발동 요청을 3회 연속 기각하고 있어, 이번 요청이 보류된 것을 업계에서는 놀라움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담당위원은 새끼 가격의 10월부터 상승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2월부터 상승이 계속되는 등 시장에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돼지부문이 COVID-19로 외식 부문 수요 감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출시장 상실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돼지부문은 유제품과 다른 돼지고기 생산의 대부분이 일부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어, 모든 회원국이 이 상황을 우려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단일의 해결책은 없다며, 시장개입 조치 발동은 최선의 선택 사항은 아니다”라며 각종 지원책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 농축산업진흥기구, ‘欧州委員会、豚肉の市場介入措置の発動要請を3回連続で拒否(EU)’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140.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140.html))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2월 28일자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EU에서는 2016년 1월에 계절적 요인이나 러시아 금수 조치의 영향 등에서 민간 재고 보조가 발동되었지만, 이후 돼지고기 시장 개입이 없다.

(출처) 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2022년 3월호([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98.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98.html))

## [영국]

### 1. (2022년 2월 10일) 英, 유제품 소매 판매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 -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6.3% 늘어

영국의 유제품 소매 판매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 크림 및 요거트를 포함한 모든 품목의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전면봉쇄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치즈 판매량은 2019년 대비 13.2% 증가했고, 그 중 체다치즈가 49%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판매량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의 경우 2020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2019년 대비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림 판매량은 요리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21.3% 늘었고, 요거트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HDB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완화로 식당 서비스업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슈퍼마켓 등을 통한 소매판매가 주춤했으나, 소비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전체 유제품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英, 유제품 소매 판매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 -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6.3% 늘어’,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2월 10일자

- 원문출처 : farminguk.com, 2월 8일자

### 2. (2022년 2월 15일) 英 알라푸드, 공급망 악재 불구 지난해 매출 증가 - 홈쿡 증가 및 식품서비스업 운영 재개로 지난해 매출 2.6% 증가

지난해 공급망 악재에도 불구하고 알라푸드 영국지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라푸드 영국지사에는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홈쿡 증가로 매출이 기록적인 성장을 보인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인력난 심화 및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020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이 내려진 기간 가정 내 소비가 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했고, 하반기에는 거리두기 완화로 식품서비스업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해당 분야 판매량이 1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례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확대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英 알라푸드, 공급망 악재 불구 지난해 매출 증가 - 홈쿡 증가 및 식품서비스업 운영 재개로 지난해 매출 2.6% 증가’,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2월 15일자  
- 원문출처 : farminguk.com, 2월 10일자

## [아일랜드]

### 1. (2022년 2월 21일) 아일랜드, 코로나19 등에 의한 인력난에 원유 집유 위기 - 차량기사 부족으로 원유 집유는 물론 유가공 산업까지 공급망 위기

아일랜드에서 원유를 집유할 차량기사가 없어 집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화물운송회사는 하원에 서신을 보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인력난 심화로 대형트럭 운전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이외 지역 노동자에 대한 입국 및 거주 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섬나라인 아일랜드의 경우 중부지방에서 원유를 집유하고 목장에 사료와 비료를 유통하고 있는데, 차량 기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목장은 물론 유가공 산업 전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본격적인 원유생산시즌이 시작되고 있어 즉각적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해 남아공 운전기사 채용을 시작했으나, 취업비자 취득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론했다. 이에, 당국은 유럽 이외 제3국과 협정 체결 등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아일랜드, 인력난에 원유 집유 위기 - 차량기사 부족으로 원유 집유는 물론 유가공 산업까지 공급망 위기’,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2월 21일자  
- 원문출처 : independent.ie, 2월 15일자

## Ⅳ. 아시아

### [터키]

1. (2022년 2월 24일) 터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인력난 상황 하에서 지난해 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 증가 - 원유생산량 2020년 대비 2.1% 늘어...유제품 수출도 36.5% 증가

생산비 증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력난 및 기상악화로 전 세계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터키의 원유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터키 통계 연구소(Turk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생산량이 2020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탈지분유 생산량이 23.9%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지분유가 15.9%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버터 및 치즈 생산량도 각각 7.9%, 1.3% 증가한 반면 시유 생산량은 2020년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제품 수출도 36.5% 증가한 가운데 이라크, 이집트 및 알제리아가 가장 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터키, 지난해 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 증가 - 원유생산량 2020년 대비 2.1% 늘어...유제품 수출도 36.5% 증가’,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2월 24일자

- 원문출처 : yenisafak.com, 2월 14일자



## V. 글로벌

### 1. (2022년 2월 21일) 낙농업계 인플레이션 심화

최근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기업인 라보뱅크가 발표한 세계낙농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 및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증가, 인력난 및 기상악화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유생산량은 감소하며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세계 전역에 걸쳐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제품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 (세계동향)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가부터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확진을 받는 근로자수가 늘어나고 생산이 둔화되며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기 시작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업계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주 유가공업체 Maxum Food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유생산량 감소로 세계 유제품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생산비 상승에 따른 EU, 뉴질랜드 등 주요 원유생산국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는 있으나 생산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착유두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유생산량 감소가 유제품 가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미국) 원유생산량 감소로 밀크 인플레이션 이어져

최근 미국낙농가협회(NMPF)에 따르면, 착유두수 감소로 원유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선물시장 거래량 추세로 봤을 때 생산량 감소가 금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원유생산량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밀크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젖소를 도축해 사육두수를 줄이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남아 있는 젖소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급여량을 줄여 원유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버터,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평균 가격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항만 정체로 인한 심각한 물류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미낙농식품협회(IDFA)는 LA 항구와 프랑스 선사 CMA CGM과 공동으로 유제품 수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남서부 항구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로의 제품 이동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 (뉴질랜드) 생산비, 운임비 상승으로 생산량 및 유제품 수출 감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비료, 가축사료, 전기료 및 방목비용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선적지연과 항구 폐쇄로 운반비가 2년 전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주요 유제품 수입국인 아시아로의 해상 운임비가 15배나 급등하면서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격은 상승했으나 계속되는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낙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 (영국) 인플레이션 압박에 유제품 가격 상승세

영국에서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며 유제품 가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제품을 비롯한 식음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산업의 경우, 연료, 사료, 비료 및 임금 등이 상승해 농가 수익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패키징 및 운영비가 눈에 띄게 올라 업체에서도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저지우유 생산업체가 우유 가격을 리터당 8펜스(약 130원) 인상하는 등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 (이란) 인플레이션 여파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감소세

최근 이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유 소비량이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 19에 따른 여파와 식품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2년간 평균 우유 및 유제품 소비가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우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초등학교에서 무상 우유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유제품 가격이 60%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부관계자는 보조금과 무상우유 급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통계조사팀, ‘(핫이슈 현안리포트) 낙농업계 인플레이션 심화’,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2022년 2월 21일자